‘완도 전복거리’ 전국 우수 외식거리 선정

완도군,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상

특화 메뉴 개발·소비촉진 행사 등 좋은 평가

국내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완도전복거리가 2020년 전국 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되었다.

완도군에 따르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외식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3회 전국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완도 전복거리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외식거리는 거리 경쟁력, 우수 식재료 사용, 서비스 및 환경·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서류 평가, 발표 평가, 고객 만족도 및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의 270개 음식특화거리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6개 지구가 경합하였으며 최종 3개소(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가 선정됐다.

특히 완도 전복거리는 지역 특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전복 단품 요리, 전복 소스 등 특화 메뉴 개발, 지역 축제 개최 시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전복 요리 시식행사 운영, 음식점 객실·주방환경과 거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자가 업소를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1업소 1담당제를 운영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 사례가 큰 호평을 받았다.

완도 전복거리는 인근 수산물시장에서 신선하고 값싼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변에는 완도타워, 장보고유적지, 명사십리 해변 등 관광지가 산재하여 외식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완도 전복거리 명소화 사업을 통해 음식점 시설 개선 및 서비스·위생 컨설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추진하였다.

군 관계자는 “완도 전복거리는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 공급과 주변 에 관광지가 많고 상인들의 인심이 가장 큰 장점이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활동은 물론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외식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도출장소 개소

진도군 청년센터내 오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

진도군은 진도군청년센터내에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도출장소’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도출장소는 목포까지 1시간 소요되는 이동 불편을 해소해 고용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진도군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수행인력과 사무공간 등 업무수행체계를 조기 확정하고 개소했다.

출장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장근무 형태로 운영된다.

군은 진도출장소 개소로 근로빈곤층의 취업 장애요인 등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과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소득에 따라 필요시 최장 1년 동안 직업능력향상 훈련비와 참여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을 제공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실업급여 지급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 딸기 본격 수확 시작

재배컨설팅 및 육묘기술 보급 등 공격적 행정 지원 결실

강진군에서 딸기 수확이 본격화되고 있다. 달콤한 맛과 향기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딸기는 대표적인 겨울 과일이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점차 수확이 빨라져 이제 11월에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도암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정철 씨의 하우스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딸기를 수확해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공판장 시세는 1kg당 2만 원 이상의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11월 중순부터 시장 출하한 정 대표는 수확 때마다 기대가 크다.

딸기는 꽃을 만든 다음 밭에 심어야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모종 시기에 꽃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정해진다. 모종을 만드는 시기는 7~8월의 혹서기로 육묘기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포장을 활용해 딸기 조기 수확이 가능한 육묘기술을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농업인들에게 시설과 장비를 보급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 교육과 SNS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해 실패 없이 딸기를 육묘할 수 있도록 해 영농정착을 도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인 기부자 안장공간 예약제 운영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안장공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땅끝해남 희망더하기’및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 연 500만원 이상 기부 또는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년 이상 정기기부한 개인 후원자이다.

안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남도광역추모공원 봉안시설 매화당 내 마련된 안장공간(사랑나눔실)에 예약할 수 있다. 출향인사 등 관외도 이용가능하지만 기부 당사자만 해당되며, 안치 금액도 기존 이용자와 동일하다.

지난 2019년 4월 3개군(해남, 완도, 진도) 협력 사업으로 해남군 황산면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3기의 화장로를 갖춘 광역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택동산,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강진군, 코로나로 ‘비대면 시식단 운영’

SNS인플루언서 대상 쌀귀리 국수면레시피 발송받아 시식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진군이 당초 대면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쌀귀리 식품 시식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SNS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시식단을 모집했다.

비대면 시식단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쌀귀리 국수면과 레시피를 발송받아 요리해 시식한 뒤 맛에 대한 평가표를 군에 제출한다.

군은 시식단 중 우수활동자 3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비대면 시식단이 남긴 맛에 대한 평가도 상품 개발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청암 주영호 작가, 장흥군에 ‘관청민안’ 서각 전달

정종순 군수 “청렴과 친절이 지역 문화 되도록 노력”

장흥군 관산읍 출신 청암 주영호 작가가 2일 ‘관청민안’ 서각 11점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관청민안(官淸民安)’은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편안하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관청민안’의 자세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암 주영호 작가는 현재 철재전통각자보존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통공예 입선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서예·서각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영호 작가는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군민이 편안한 장흥을 만들어 주라는 의미로 ‘관청민안’ 서각 작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귀한 작품을 기탁해주신 주영호 작가님에 감사드린다”며, “청렴과 친절이 장흥군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